

다시 쌓이는 아파트 경매...전남 5건 중 1건만 낙찰

월 200건 육박...거래 위축에 낙찰률 줄하락

광주 낙찰가율 올해 처음 70%대 내려앉아

광주와 전남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각각 14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5월 지지경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가장 많은 물건이 쏟아진 지난 4월 181건에 이어 5월 178건으로 두달 연속 200건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 280건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적체 심화,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낙찰률과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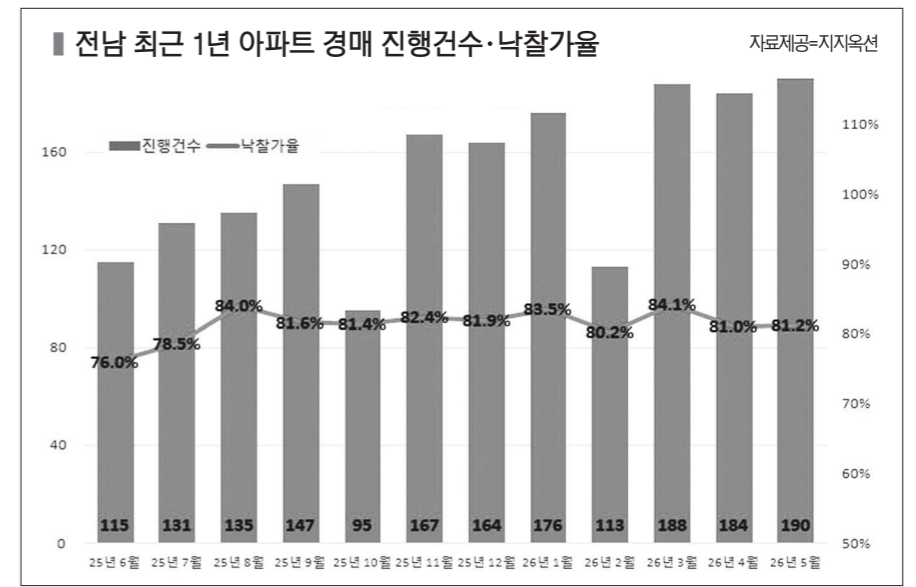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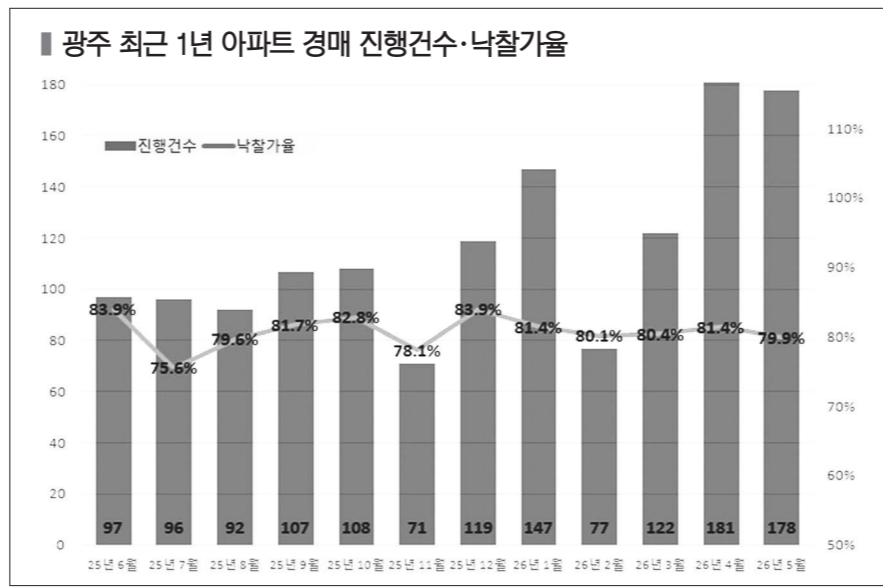
가율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광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처음 80%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의 4월 아파트 낙찰률은 37.0%, 낙찰가율은 81.4%를 기록했다. 이어 5월에는 낙찰률이 28.1%에 그쳤고 낙찰가율도 79.9%로 하락했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4월 5.4명에서 5월 5.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남 역시 경매 물량이 급증했다. 4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84건으로 이 가운데 63건이 낙찰돼 낙찰률 34.2%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1.0%,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이었다.

5월에는 진행 건수가 190건으로 늘었지



만 낙찰 건수는 37건에 그쳐 낙찰률이 19.5%까지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81.2%,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 2019년 8월 259건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매업체는 임대사업자나 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경매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행 건수가 평소보다 많은 이유는 임대사업자나 건설사업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한 번에 시장에 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늘어나면서 낙찰률도 함께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농협 전남본부와 장흥축협은 최근 롯데아울렛 남양점에서 '육포데이'를 기념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남농협, 한우 육포 소비촉진 캠페인

육포데이에 맞아 롯데아울렛 남양점서 시식·나눔 행사

농협 전남본부와 장흥축협은 최근 롯데아울렛 남양점에서 '육포데이'를 기념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육포데이는 숫사 6(육)과 4(포)의 발음을 활용해 6월 4일로

지정된 기념일로, 국산 육포 소비 확대와 한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장흥축협은 그동안 육포데이에 선 포시식과 다양한 홍보행사를 꾸준히 추진하며 한우 육포 소비 촉진이 앞장서 왔다.

이번 행사는 (사)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장을 찾은 고

객들을 대상으로 한우 육포 시식과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산 한우 육포의 풍부한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비비잉 공연을 비롯해 룰렛 경품 이벤트도 함께 열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품으로는 한우 사골곰탕과 한우 육포 등이 제공돼 행사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김재은 장흥축협 조합장은 "장흥한우 육포는 저지방·고단백 부위를 원료로 사

용해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인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움을,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광주시, 10~14일 전통시장 환급행사...최대 30% 환급

광주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지역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 참여 시장은 △남광주시장·남광주해프레스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순암시장 △송정매일시장 △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

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예를 들어 7만원 상당의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의 정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은정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검사국은 최근 농협 광주본부 2층 라운지에서 관내 농·축협 상임감사와 감사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예방과 감사업무 혁신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검사국, 사고예방·감사 혁신 컨퍼런스

형량사고 예방·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

농협 광주검사국은 최근 농협 광주본부 2층 라운지에서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와 감사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예방과 감사업무 혁신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바탕으로 조합원과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사업무 방향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주요 사고사례 공유, 감사기법 전파, 담당자 간 심층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농·축협의 견전한 조직문화 조성,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농·축협 사고 근절과 감사업무 질

효성 강화를 위해 형량사고 점검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부당한 업무 관행 개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농협 광주검사국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감사업무 혁신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농협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자 광주검사국장은 "농심천심의 정신은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농협의 기본 책무를 의미한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 수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사고 없는 투명한 농협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거름' 시, 참여기업 11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거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인원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을 우선 선발한 뒤 향후 모집할 청년 구직자 96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다.

참여 청년들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직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4억원(국비 7억원·시비 7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참여기업에 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 4대 보험 기업부담금 월 26만원,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멘토수당 월 15만원 등 최대 월 29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심사와 선정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모집이 시작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오비맥주, 세계 환경의 날 맞아 '기후행동' 실천

광주 등 생산공장별로 친환경 실천활동

오비맥주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광주와 이천, 청주 3개 생산공장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및 친환경 실천 활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기후 행동(Climate Action)' 아래 각 공장별 특성과 지역 환경에 맞춘 정화 활동, 자원순환 프로그램,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지난 4일 박재연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을 벌

였다. 임직원들은 하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개선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기후행동 실천 이벤트'를 10일까지 운영하고, 12일에는 구내식당 이용 시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동참하는 '잔반 ZERO'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천공장은 오는 14일 김두영 이천공장장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북한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다. 폐페트병 두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컵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원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보호 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날 청주공장에서도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포함한 임직원 40여명이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공장 내에서는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열어 임직원들이 물품을 공유하며 절약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통근버스 이용과 카풀을 장려하고, 구내식당에서는 잔반 감축을 위한 '잔반 ZERO' 이벤트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오비맥주 광주공장 직원들이 영산강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오비맥주